

道貫九則錄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一貫道

道貫九則錄

第一則說的是老母無量

제일칙에 설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 상천 노모님의 무량하옵신 대자대비
로서

爲原靈無迷路指點眞陽

본성을 위하여 길 잃어 갈팡질팡 헤매는 일이 없도록 진양관을 지점한다.
眼看着大災難不久要降

눈앞에 커다란 재난이 오래지 않아서 곧 내릴것이 내다보이는데 애처롭
다.

皇胎子睡鄉夢忘却母娘

철 없는 아가들이 꿈나라에서 나비가 되어 놀고 어머니품을 잊어버리고
있다.

子生天丑地闢天地成象

자시에 하늘이 생기고 축시에 땅이 열려서 천지가 형상을 이룩하고 12시
가

到寅會望東土人民不敵

각각 10.800이니 인회에 사람이 날으며 동토를 바라보니 시원치 못하다.

捨九六皇胎兒落在海蕩

96억 본성을 고해의 넓은 바다에 떨어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奈人心太不古缺少謙讓

인심이 너무나 옛과 달라서 겸양함이 없으니 부처님 얼굴에 짐승 마음
이라.

命三陽掌三盤三曹案詳

노모님이 백양삼기 미륵불을 시켜 천지인(天地人) 3반을 담당하고 삼조
(天 曹 人曹 地曹)을 다 안아서 밝히네

寅至今六萬年心血滾浪

인시에 사람이 나서 60.000여년동안 원죄가 쌓이고 쌓이니 심장의 피를
출렁출렁

今日憂明日愁隨處流浪

흘리며 오늘도 증생을 못 건져 금심하며 본성을 모 거두시는 수심, 곳에
따라 방탕하면서

好容易大千界治化妥當

대천세계를 순조롭고 알맞게 착한 정치로 백성을 교화하시네.

到如今要撤毀退推紅陽

이제와서는 홍양기에 베풀은 법을 거두어들이고 헐고 말아서 한쪽으로 치

우라니

誰知道交午會人心大放

오미교체의 이 때는 상상외에도 인심이 크게 놓아서 착한 마음을 독해하는

貪嗔痴殺盜淫並兼蹶昌

세가지 번뇌 탐진치와 다섯가지 지켜야할 금계 곧 살생 투도 사음 망어
所以的老皇母恩澤深廣

음주의 버릇이 좋지못한 병이 자꾸 퍼지는 것 같이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노모님이 하해 같이 깊고 넓은 은덕으로

定三期開普渡更新萬象

이 시대를 삼기로 정하여 보도를 열어 온갖것을 고치어 새롭게 하네.

自靈山失散了至今未忘

영산에서 헤어진 후로 지금 까지 못잊어.

候三會丹滿了纔登蓮邦

언제이면 용화3회에 원만이 서로 만나 겨우 연꽃나라에 오르게 될까 기다린다.

第一期是燃燈千里尋訪

제1기는 연등고불시대이니 천리길을 찾아다니면서

男道士女道姑入山修藏

남자는 도사요 여자는 도고라 산으로 들어가 보배를 닦으니

共渡了二億人同把岸上

2억 인민을 건져서 한가지로 피안에 올라

三月望會龍華朝見無皇

3월 보름에 용화나무 밑에 모여서 무황노모님을 뵈옵고

第二期是釋迦古洞修養

제2기는 석가불시대이니 옛 동굴에서 수양하면서

男和尚女尼姑脫離家鄉

남자는 화상이요 여자는 이고라 고향집을 떠나니

又渡了二億人瑤池回生

다시 2억 인민을 건져 요지로 돌아가

六月望會龍華大見親娘

6월 보름에 용화나무 밑에 모여서 어머니를 뵈옵고

第三期應彌勒普渡開廣

제3기는 미륵불시대이니 그에 따라 보도를 널리 열어.

善男子信女士重整倫常

선남자와 신여사가 인륜오상을 거듭 정비하니

九二億殘靈子一個不忘

92억의 남은 여성이 하나도 잊음없이.

九月望會龍華同證蓮邦

9월 보름에 용화나무 밑에 모여서 한가지로 연꽃나라에 오를것이 틀림없네

祖祖傳師師授妙法無上

조(祖)마다 전하고 사(師)마다 주신 묘법이 무황상제의 법이니

著經典剖倫理修道悟常

경정을 저작하고 윤리를 해부하여 도를 닦는이 옳게 깨닫네.

時已至命四億一齊下降

때가 이미 이르니 4억의 영을 시켜 일제히 하강하고

命三教佛聖仙個個到忙

3교의 부처 성인 신선을 시켜 개개인이 바쁘게 이르되

分五行派十地自天保障

5행으로 나누고 10방에 파견하여 천(天)으로부터 보장하니

遷萬靈取引証共撐慈航

만령을 건져올려 표를 검사하고 한가지로 자향을 잡아타라네
也不用千里求萬里尋訪

천리밖에 구하고 말리길을 찾아 갈것도 없이

祇要你多立功自有昭章

다만 그대가 공을 많이 세우면 자연 밝게 나타남이 있으리니
妻爲朋子爲伴同修同養

아내를 친구를 삼고 자녀를 벗으로 삼아 같이 도를 닦고 같이 덕을 길러
功圓滿果成就拔宅還鄉

공이 원만하고 과가 성취하면 가향(假鄉)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因此事諸佛祖同助道場

이일로 모든 불조가 한가지로 도장을 도우시니

憫九二皇胎子墜落汪洋

92억 귀한 아가들이 큰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타깝다.

早把那先天理辦得妥當

빨리 선천의 이치를 편안하도록 마련하여

認得淸視得明好回家鄉

맑게 알고 밝게 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聖經云知先后則近無上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뒤에 할것인가를 알면
무황상제에 가깝다 했으니

是父母未生前一點靈光

이 부모가 나를 낳기전 한점 광명한 영이

掃七情除六慾五蘊四相

칠정(喜怒愛樂哀惡慾) 육육(眼耳鼻舌身意) 오온(色受想行識) 사상(人相 我相 衆生相 壽者相)만 쓸어버리면

光灼灼赤洒洒亮亮堂堂

눈부시게 빛나고 시원하게 밝고 으리으리하고 당당한 모습이네

六百足結靈體倒頭換象

거미가 영성의 본체에 줄을 치기로 머리와 꼬리가 거꾸러지고 본얼굴이 바뀌어

乾變離坤變坎失却靈光

건괘가 이괘로 변하고 곤괘가 감괘로 변한 격이다. 여성이 광명을 잃었네
一元神竟變成思慮妄想

한 원신이 마침내 변하여 사려망상으로 되고

把三寶盡耗散日漸虧傷

정기신(精氣神)삼보를 다소 모하여 흐트러 날마다 점차로 이지러지고 상하니

求明師指一貫存心養性

명사를 구하여 이관한 도법을 지점받고 존심양성하되(存心氣養=호연지기를 기르되)

用離火煉坎水復還乾陽

이괘의 불로서 감괘의 물을 달여 건괘의 양으로 돌아가면

這就是造化功正等無上

곧 이것이 조화를 일으키는 공이다 六면평등 무황상제이시니

奇功滿大丹圓任意翱翔

기이한 공으로 큰 선단이 원만하면 우주를 마음대로 놀며 돌아다니네

聖經云明明德就是標榜

선경에 이르기를 밝은 덕을 밝힌다하니 곧 이것이 주장이오

多心經觀自在本來性光

바라밀다심경에 이르되 저절로 있는 것을 본다하니 이것이 본래의 광명한 영성이다.

玉皇經聖日月照耀明朗

옥황경에 이르되 성스러운 일월이 밝고 쾌활하게 비추어 빛난다하니

豈比那小旁門盲瞎猖狂

어찌 소인배 좌도방문의 관수 애꾸눈들이 미친 것 같이 날뛰는데 비하겠는가?

若遵行三聖經成個榜樣

만일 이상 세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時刻刻把正宗修煉金剛

시시각각으로 조사의 정통을 이어받은 종파로서 금강의 무너짐이 없는 마음

庶不負純陽祖慈悲恩廣

수련하여 거의 순양여조의 자비하옵고 광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進一層有一切品位高強

한 층계를 나아가면 한 공이 있을 때마다 품위가 높고 강해지려니와

德不修學不講怎免罪障

덕을 닦지않고 학을 강구치 않으면 어찌 죄열과 장애를 면하며

不能徒不能改怎免賢良

선을 보아도 능히 옮겨가지 못하고 악을 들어서 알고도 능히 고치지 못하면 현량이 못됨을 면하리오.

難免得皇母悲抄書痛想

노모님이 슬퍼하여 글로 쓰시어 애담게 생각하심을 면하기 어렵고

又不忠又不孝怎還故鄉

또 불충 불효하면 어느 낮으로 선천의 고향집을 찾아가리오.

若有那誠心者真功獻上

만일 성심자가 있어서 참된 공덕을 바치면

方免得老無皇弔淚心傷

바야흐로 노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상심하시는 일이 없고

赴龍華會群真諸佛旋獎

용화회에 나가서 모든 신선과 모든 부처를 만나면 선행을 칭찬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표창하고

忠孝男賢良女萬古稱揚

충효한 남지요 현량한 여자라고 만고에 칭양(稱揚)하니라

豈不是堯舜世相推揖讓

어찌 이 요순시대가 아니리오 천하를 서로 싫다하여 음양으로 다스리고

功德果這三件實實行藏

공덕과 세가지의 실지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감이 결정되네

一子成九祖昇諸真景仰

한자식이 성도하면 9조를 천당에 초승하여 모든 신선을 사모하여 우러러 보며

下皇母喜按品格勅封獎賞

노모님이 기뻐하여 품격을 살펴 칙지를 내리워 벼슬을 봉하고 권하여 상

주하고

上一家人大合小聚慶一堂

한가족이 대소를 합하여 一당에 모여서 경축하고
笑哈哈笑快樂無疆

하하 하하 웃으며 쾌락이 끝이 없으리라.

偈曰

道降末法挽皇胎

도가 말법시대에 내리니 고해에 빠진 영성을 건지려
貫穿華夷普渡開

선진국과 미개의 먼 나라를 꿰뚫고 통해서 보도를 열었다.

九二還原出苦海

92억의 영이 근본으로 돌아가 도해를 벗어나고

則到瑤階永不來

곧 요지 극락궁의 뜰앞에 이르면 길이 길이 고해세계에 다시 오지 않으리

第二則說的是三天佛聖

제2측에 설하는 것은 이 제3백양기에 부처님과 성인이

金爐前發洪愿要渡殘靈

금화로(백양화로) 앞에서 큰 원을 세우니 쇠하여 잔약한 영을 건지려는
것이다.

挽九六皇胎子同歸聖境

96억 황태자를 바로잡아 회복하여 한가지로 성스러운 지경에 돌아가야만
이

方免得老無皇日夜悲聲

바야흐로 노모님이 밤낮 슬픈 소리로 통곡하시는 것을 면하리라.

自寅會原來子投胎分性

인회(寅會)로부터 인류가 태생하여 남녀의 성별을 나눠서

到如今屈指算六萬餘冬

지금에 이르기 까지 손꼽아 헤아려보면 육만여년

也不知造多少彌天罪重

그동안 얼마나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늘에 죄가 가득히 죄가 증하
니

那冤孽豈讓他騙賬回程

그 어긋난 피해자와 채주들이 어찌 장부를 속이고 고향으로 가는 것을 가
만히 두리오.

貪口腹殺多少四生物命

구복(口腹)을 탐하여 얼마나한 사생(四生=태생.난생.습생.화생)의 동물을 죽이고

亦或是謀財產把人命傾

또한 혹시 재산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넘어뜨리니
你殺他他殺你越殺越重

네가 그를 죽이고 그가 너를 죽여 더욱 죽일수록 더욱 죄가 중하여
到今日想逃脫萬萬不能

오늘에 이르러서 벌 받기를 피하려한들 어찌 능하리오!
一個個陰曹府嚎啕悲慟

개개인이 고향으로 못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비통하게 부르짖고 있다.
十殿王無奈何表奏天庭

십전엄군이 어쩔수 없이 금궐에 표문을 올리니
無極母見表文只得悲慟

무극 노모님이 표문을 보시고 얼마나 비통히 여기시며
諸神佛祇也難免傷淚傾

모든 신불(神佛)이 또한 구슬픈 눈물을 아니 흘릴수 없네
只哭的三天佛慈心發動

다만 울고 계시는 삼천(三天) 백양기의 부처님이 자비하옵신 마음이 발동하여

體皇母加憐憫要救殘靈

노모님의 뜻을 본뜨고 그 동정을 가하시는 말씀을 받들어 최잔한 영을 건지려

一個個願捨身到裝分性

개개가 원을 세워 몸을 희생하고 꺾대기를 바꾸고 영을 나누어
九九難八一災替兒担承

九九=八十一의 재난을 전 인류를 대신하여 책임지네
想從前修大道許多不幸

생각전대 전부터 대도를 닦으기는 불행이 많았다.

皇上考官府磨實實難行

상천의 시험과 정부의 참말 전디어 나아가기 어려웠다.

閱歷代有幾位實實發命

오랜 역사를 겪어옴에 참말 목숨을 희생한 이가 몇몇이나
提起來不由人雙淚齊傾

말을 꺼내오니 저절로 두줄기 눈물이 일신에 쏟아진다.

誰知道這人心真乃難整

아아 인심이란 참말 이렇게도 바로잡기 어렵고

怎奈他貪無厭實在難更

재물을 탐하여 놓지 않는 마음이란 실지 이렇게도 고치기 어려운 것인가?
寅至今六萬年迷昧沉重

인회에서 지금까지 육만년동안 어두어서 헤메고 무겁게 가라앉아
只知道肥自己那管人傾

다만 자기의 몸만 이롭게 할 줄 알았지 남이야 죽거나 살거나
有一千想一萬行險徼倖

천(千)이 있으면 만(萬)을 얻으려 험한 일을 행해가면 뜻밖에 얻는 행복을
바라고

有了富又想貴終無滿盈

재산이 있으면 또 지위를 얻으려고 마침내 만족함이 없네
就知道恩愛親名利爲重

곧 은혜와 사람과 일가와 명예와 이익을 소중이 여길줄 알아
牽纏絆只等到氣斷喉嚨

끌러가고 돌리고 감겨서 다만 목구멍에 숨이 끊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네
一靈魂入陰曹十玉擺弄

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열군데 염라대왕의 손에 놀리어
依法律受滿了發放投生

법률에 의하여 벌을 받는 기한이 놓아서 차면 인간세상으로 내보낸다.
他言說自有那神仙本性

그가 말하기를 신선이란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니
凡夫子想成仙真乃愚朦

범부가 신선이 되라는 것이 진실로 어리석고 몽매한 생각이라고.
似這等痴愚漢墮落坑井

이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정에 떨어지니
設甚法能勸他認祖歸宗

무슨 방법으로 능히 그를 타일러 불조를 알고 성인의 문에 돌아오게 할꼬
老皇母憐皇胎遭劫凶猛

노모님은 당신의 어린자식들이 흉악하고 맹렬한 겁살을 만나는 것이 가엽
어서

每日間靈山上大放悲聲

날마다 날마다 영산 위에서 크게 슬픈 소리를 놓아서 울고계시네
只哭的兩眠昏咽喉疼痛

두눈이 어둡고 목이 아프도록 울기만 하시니
忙壞了三天佛衆祖神明

삼천(三天) 백양기의 모든 불조와 신명들이 당황하여

急忙忙帶法寶捨身濟衆

허둥지둥 법보를 지니고 몸을 희생하여 증생을 건지려
領老母鐵面牌苦口叮嚀

노모님의 침면패를 가슴에 달고 다니며 입이 쓰도록 정성도이 말하네.
常言道一誠心就有感應

항상 말하기를 한번 성심을 내면 곧 감응이 있다하니
自然有原來子把道遵行

사람의 본성이 자연 대도를 좇아 행함이 있으련만은
知道誰道心微人心太重

누가 알리오 도심은 미약하고 인심은 너무나 크니
誰學道也不過掛個虛名

비록 도를 배운다고 하나 헛된 이름을 걸고 있을 따름이다.
一天天不燒香經也不誦

하루 하루 소향도 않고 경을 외지도 않으니
且慢說結大丹遵訣修行

큰 선단이 형성되기 위하여 비결은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願不答這大道那有感應

원세운 것을 실천 않으면 대도가 어찌 내몸에 통함이 있으며
經不誦這冤孽怎能消清

경을 외지 않으면 원수와 재앙을 어찌 능히 쓸고 닦아 깨끗이 하며
坐不打這三寶怎能結定

정좌하여 심사묵상하고 심성을 유명하여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참선공
부가 없으면 어찌 정기신의 삼보가 한곳에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얻리오.

冤不消孽不除終久落坑

죄를 소제하지 않으면 결국 함정에 빠진다.

古人云道高尺魔高丈等

옛 사람이 이르기를 도가 한자 높으면 마의 높이가 한길쯤 된다고 하고
中庸云無至德至道不凝

중용에 이르기를 큰 덕이 없으면 큰 도가 영키지 않는다 하니
陰陽考順逆磨奇怪種種

음성적과 양성적, 순경과 역경의 시험이 종종 기괴한 것이 있어서
甚至於魔入竅就要橫行

심지어 마가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자유 횡행하라고 들어온다.
或開齋或破戒言願犯淨

혹은 제계를 깨뜨려서 원세운 것이 부정하게 되고

或欺師或蔑祖天榜除名

혹은 조사를 속이고 업신여겨서 천방의 명단에서 제명 당하니
且慢說成大道超凡入聖

대도를 이룩하여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에 들기는 고사하고
反連累九玄祖痛哭幽明

도리어 구현칠조까지 범죄에 관계되어 유명에서 통곡하게 하네
老無皇在靈山雲城望等

노모님이 영산 운성에서 자녀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사다가
觀此景怎免得慈心不寧

이런 관경을 보시고 어찌 그 마음이 편치못함을 면하시리오!
從今後曉諭您乾坤衆領

금후부터는 건곤 여러 대증과 영도자에게 타이르노니
總要守祖祖傳師師規程

중요한 것은 조사님들이 전해 내려온 규정을 지켜야 하고
把三歸合五戒總要嚴整

삼귀(三歸)와 오계(五戒)를 엄숙히 정돈하여 갖추어야 한다.
四時香答願懺罪過消清

나마다 네차래 소향하고 원참문을 실천하여 죄과를 깨끗이 소멸하고
忙偷閒勤誦經冤孽減淨

바쁜 가운데 틈을 타서 부지런이 경을 외우면 원수와 재앙이 덜리고 깨끗
해서

精氣神煉成寶纔有據憑

정기신 삼보를 단련하여 이루는 것이 겨우 근거가 있으리라
至善地靈台穴眞眞靈應

지극히 착한 본성자리 영대의 구멍이 참으로 참으로 선불의 영과 감응하
仰彌高鑽彌堅欲罷不能

우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굳어 그만두고 전하나 그만두지
못하리니

九節工有次序層層動靜

구절 공부가 차례가 있어서 한층 한층 나아가는 一동一정의 공부이니
結一粒大仙丹任意飛騰

한방울 큰 선단을 형성하면 마음대로 날아올라서
超三界離五行免了懲上剋下

천지인 삼계를 초월하고 목금수화토 오행을 떠나서 이기고 징계함을 면하
고

功圓滿果成就龍華早慶

공덕과 성과가 원만성취되면 용화회에 일찍이 경축연을 베풀어서

天地人三曹官答對文憑

천지인 삼조의 관원이 一문一답으로 심사한 후

依功德定品級高下不等

공덕에 의해서 품급을 높고 낮음을 여러층으로 조정하리니

亨清福萬萬載永不投東

청복을 수만만년이 되도록 누려서 길이 동토에 오지 않으리

偈曰

前爲生死遊名山

앞서는 초생료사하는 길을 찾아서 명산 큰 절에 놀았네

山水踏盡無宗玄

명산대천 여러곳을 모조리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표준되는 현관을 못찾았네

今蒙慈悲親指點

어제 노모님의 자비하옵신 은혜를 입어 직접 지점받으니

點破大道在眼前

대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손으로 가리켜 깨우쳐주네

第三則說的是金木二老

제삼칙에 설하는 것은 이 금공 목공 두 조사가

都只爲皇胎子投生東郊

모두 다만 노모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동토에 태어나서

普天下掌大道辛苦難表

보천하에 대도를 펴는 책임을 담당하니 그 신고(辛苦)를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렵고

開普渡把舵艣力難描

보도를 열어 범선의 키를 잡으니 그 노력을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렵다.

聞誹謗與着辱無煩無惱

비방과 수욕을 당해도 번뇌함이 없고

歷寒暑經風霜無傲無驕

추위와 더위 바람과 서리를 겪어도 그 급힘 없음을 자랑하지 않고

遭風波。驚恐無暴無燥

풍파와 두려운일을 만나도 과격히 큰 소리로 지껄임이 없고

承考徵受顛連無恐無曉

시련과 고난을 받아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함이 없네

著綱常剖倫禮闡明聖道

삼강 오상의 책을 저술하고 인륜예의를 자세하게 나누어 연구해서 성인에

도를 밝히고

註經典破玄微解透瓊瑤

경전을 주해하고 현미한 진리를 깨쳐서 진세를 해탈하고 천당으로 통하네
開天道闢人道貫通三教

천도를 열고 인도를 헤쳐서 윤불선 삼교를 한 이치로 꿰어 통하고
纂條規立箴銘整理舵艖

불규조례를 편찬하고 잠영등을 가르쳐 경계하는 뜻을 붙인 글을 내서 키
를 마련하고

講天文講地理講明一竅

천문(天文)과 지리를 강연하고 본성의 한 구멍을 강연하고

講八卦講五行講明象爻

팔괘와 오행을 강연하고 팔괘의 상과 육효를 강연하네

講千律講地形講明果報

천(天)의 율법과 땅의 형상을 가연하고 인과 응보를 하연하네

講考徵講魔難講明墮超

마의 시련과 고난을 강연하고 지옥과 천당을 강연하네

歷年來出書臨英明訴告

역대조사 이래로 강필이 나와서 의심할 여지 없이 잘 알려주고

收圓事大天機朗朗指照

수원대사의 천기를 흥겹고 명랑하게 지시해 주시네

正與邪妖怪精屢屢開導

정도와 사도의 산요 수괴와 초목정기를 때때로 열어 지도해주시고

道與魔孽冤仇層層教調

도와 마의 재앙과 원수를 점진적으로 가르쳐 훈련을 거듭하네.

近面訴遠諭示心苦難表

가까우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멀면 문서로서 타일르니 그 고심이 표
시키 어렵고

提起來頂災劫令人悲嚎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사람이 자진하여 재해와 겁살을 받으니 그로하여금
슬프다.

奈元人孽深重災難未了

어찌하여 본디 사람이 죄열이 심중하여 겪어야할 재난을 다 못치르니

天數改月令催時機怎逃

천운이 고치고 다달이 행사가 재촉함에 시기를 어찌 도피하리오!

或水火或瘟疫又或賊盜

혹은 수재 화재 혹은 유행병 혹은 도적

又或是飢與饑考人墮超

혹은 흉년 기근의 사람의 지옥이나 천당이나의 문제를 던진다.

多立功廣培德亦可免饒

공을 많이 세우고 덕을 널리 심으면 또한 가히 재난을 면하기 어려워

若不然生退悔必無下梢

만일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네

渡人舟撐苦海舵艖緊抱

사람을 피안으로 제도하는 배는 고해 바다의 물결과 맞서서 겨루니 키를 단단히 잡고

縱凶灘與惡水誰敢停篙

아무리 흉악한 여울과 험악한 물길이라도 누가 감히 샷대를 멈추리오!

戰兢兢畏慈航攏岸不早

자항 범선이 저 언덕에 오르지 못할까 매우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又恐怕落一個皇胎英豪

또 노모님의 자녀를 한분이라도 떨어뜨릴까 두려워하네!

叮頂保引證恩舵艖掌好

인보사의 정이 깊으니 키를 잘 잡아야 하고

囑萬靈舟既開着實撐篙

배가 이미 떠나니 샷대를 잡고 끝까지 착실히 버티어 나가기를 만령에게 다짐하네

要體貼老無皇盼兒不到

노모님이 문에 기대어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가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본떠야 하고

要體貼金木公救世心焦

금공 목공이 세상을 건지려고 애쓰는 속태우는 것을 본떠야 한다.

依祖規不妄爲諸佛暗保

조사의 규측에 의하여 망녕된 행위가 모든 부처님이 암암리에 보호하고

遵師訓不違悖菩薩默調

사존의 훈시에 따라서 어기지 않으면 보살님이 묵묵히 도와주네

先正己后正人此法最妙

먼저 자기를 바로잡은 뒤에 남을 바로 잡나니 이 법이 가장 묘하고.

以身教爲言教其度最高

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써 말로 가르치는 것을 삼나니 그 정도가 가장 높아서

靜渡己動渡人動靜玄妙

정하면 자기를 제도하고 동하면 남을 제도하니 一동一정에 도리가 현묘하고

成得己成得人算得英豪

자기를 완성하고 남을 완성하면 영웅호걸이라고 한다.

沖天志猛勇心常久纔妙

하늘을 찌를듯한 큰 뜻과 용감한 마음은 항구불변이라야 묘하니

切莫要半途廢人已全拋

절대로 증도에 그만두어서 남과 자기의 권리와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

凡修道把忠孝常常體道

무릇 수도는 충효를 항상 본뜨고

要體思皇胎珠淚嚔啣

노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여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심정을 본떠야 하네

若改念金爐願不能得了

만일 생각을 고치면 금로(金爐)앞에서 세운 원을 능히 실천 완료 못하고
願不了躲不脫輪迴煎熬

원을 실천 완료 못하면 윤회의 고생을 도망하여 벗어나지 못하네!

曾夫子他一生得此玄妙

증부자께서 그 일생에 이 깊숙하고 미묘한 이치를 깨달으시니

臨終時示小子謹遵這條

임종시에 제자들에게 삼가 유측을 준수 할 것을 준수하였다.

前有車后有轍車行舊道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 있으니 차가 옛부터 다니는 길을 가면

方不負金木老慈心焦躁

바야흐로 금공 목공이 애를 태워서 마음을 졸이시는 것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三期時開普渡赤心難表

삼기때에 보도를 여니 그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렵다.

一層層一步步都有規條

과제를 따라 차례차례 모두 유측이 있으니

三個條十六規明明訴告

삼개조 십육규를 의심할바 없이 밝게 하소연 하노라

遵者超違者墜決無溷淆

지키면 천당이오 어기면 지옥이라 결코 뒤섞임이 없네

講大道講考魔修身要妙

대도와 마의 시련을 강명하니 몸을 닦는 묘법이요.

講綱常講倫禮齊家規條

삼강 오상 인륜예의를 강명하니 제가하는(집안을 잘 다스리는) 규칙이요.

講山妖講水怪冤緣相報

산의 요귀와 물의 요괴를 원수와 인연이 서로 갚고

講收圓講普渡邪正分消

수원과 보도를 강명하니 사도와 정도의 분간이 밝고

講栽培講德行修行機巧

덕을 심어 가꾸는 일과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강명하니 수행하는 솜씨
요

講陰陽講抽添煉丹根苗

음양과 감괘를 빼고 이괘를 보태는 법을 강명하니 금단을 고아 이루는 근
본이요

講世俗講人情人道捷要

세속과 인정을 강명하니 인도를 배우는 첩경이요.

講齋戒講沐浴天道舍包

제계와 목욕을 강명하니 천도가 그속에 있다.

行道者依此條磨難必少

도를 닦는자 이 조목에 의하면 마의 수련 영향이 적고

功必圓果必滿德備高超

공과가 원만하고 덕이 갖추어 높이 천당에 올라

回金關見老母哈哈大笑

금궤에 돌아가서 노모님께 뵈면 하하하하 크게 웃으시며

超九玄拔七祖同登天曹

구현칠조를 올려주어 한가지로 천조에 오르리라

講道者依此條目有吉兆

도를 강명한자는 이 조목에 의하면 자연 길조가 있어

人無風又無浪又無愁懔

바람도 없고 또 물결도 없고 또 우수라려로 인하여 몸이 말고 파리함도
없네!

衆賢良亦從此行爲踴躍

몸든 현량이 또한 이에 따르면 행동이 용감하게 되고

功早成果早赴蟠桃就早

공과가 일찍이 이루고 반도의 열매가 일찍이 열리네

坐禪者依此條早開玄竅

참선하는자 이 조목에 의하면 현관의 한구멍이 빨리 열려
 三花聚五氣凝衆星拱朝
 정기심 삼화가 모이고 금목수화도 오기가 현관에 엉키고 모든 별이 북두
 성을 향하여 조회하네
 大仙丹早結就候母選詔
 큰 선단이 일찍이 형성되면 노모님의 인재 뽑는 조서를 기다려
 脫凡體証金身快樂逍遙
 범부의 몸을 해탈하고 금강신을 증명하여 쾌락하게 소요자재하며
 赴龍華會諸眞三曹同到
 용화회에 나아가서 모든 진인과 만나리니 삼조가 같이 이르러서
 恭喜你上品蓮何等高貴
 그대의 삼품연대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축하하리니
 不枉你投明師得授至道
 그대가 명사에 몸을 던져 대도를 받아 얻은 보람이 있고
 不枉你下苦口層層教調
 그대에게 입맛이 쓰도록 조목조목 가르쳐준 보람이 있네
 偈曰
 一貫大道渡群迷
 일관대도가 모든 미매한 사람을 건지네
 迷人不知上天梯
 미매한 사람들이 삼천에 오르고 다리를 알지 못하네
 梯分九等眞妙理
 다리가 아홉가지 층계로 되니 참으로 묘한 이치이다.
 理透玄機世合一
 이치가 현묘한 천기에 통하니 삼천세계가 한나가 되네
 第四則是說的萬靈佛子
 제4칙에 설하는 것을 만령불자가
 爲皇胎迷東上不知回西
 동토에서 헤메는 서천으로 돌아갈줄 모르는 황태들을 위하여
 歷年來跋涉辛未灰心意
 오랜 옛부터 발섭신고를 하였으나 열이 식어지지 않고
 更有邦艱難苦難叙難提
 또다시 말 못할 간난신고를 겪어가네
 拋父母離家園又捨兒女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아녀들도 버리고
 披星月受風霜寒暑渴飢

이른새벽 깊은밤에 서리바람 한서기갈을 받아가며
 只要有好良賢遠近亦去
 좋은 인재만 있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也不論路窄狹危險高低
 길이 좁고 위험하고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않네!
 提起來山川間崎嶇難比
 생각하면 산과 내에 기구한 갈퀴길이 비할데 없으니
 跋一山涉一水胆戰心提
 한 개의 산을 넘으면 다시 한 냇물을 건너갈제 간담이 떨리고 심장이 설
 레이네
 懸着心弔着胆兩不接氣
 마음을 솟구치고 쓸개를 매달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이
 甚至於肩碎破脚打爛皮
 심지어 어깨는 헐고 다리는 달아서 피가 흐르네
 這就是跋涉辛一言難叙
 이것이 밭삽(개황)하는 신고이니 한말로 다하기 어렵네
 提起來艱難苦聲聲嘆息
 간난신고를 곰곰이 생각하니 허희탄식이 저절로 나네
 遇風波遭考徵何人頂替
 풍파와 시련을 만난들 어느누가 대신 하리오.
 還有邦受誹謗羞辱慘悽
 또다시 비방과 수욕을 처참하게 받으니
 似如此亦不敢怨天恨地
 그래도 감히 천을 원망하거나 땅을 빙자하지 않고
 怨自己六萬年冤孽累積
 자기의 육만년 원채가 밀려온 것 이라고 생각해지네
 這都是體老母思念兒女
 이것도 모두가 노모님이 아녀들 걱정으로
 在靈山日日哭夜夜悲啼
 영산에서 날마다 우시고 밤마다 우시는 것을 생각하니
 無奈何駕寶筏各處曉諭
 생각다못해 어찌든 법선을 몰고 각처로 선전하며
 到處訪到問九二踪跡處
 가는 곳마다 92원자의 종적을 물어보네
 倘若是有一人略知我意
 다행이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대강 아는이가 있으면

恨不能把肺腑盡付與伊

흥금을 탁 털어놓고 다주지 못한 것은 한이 될 일일세
是原人遇大道精細伶俐

이것이 원인이라면 대도를 만남에 정세하고 영리하게
見而知聞而明無猜無疑

보아서 알고 들어서 밝히니 의심이 없네
是異類不喜受大道規矩

이것이 딴 종류라면 대도의 불규를 받기를 싫어하여
又或是自暴棄或言稀奇

혹은 자포자기하고 혹은 희기하다고 말하네
誰知道四大關酒色財氣

주색재기의 네근데 성문이 굳게 닫혀있음을 그 누가 알리오.
奈九二貪無厭那有出期

92원자가 이것을 탐내고 싫증이 없느니 벗어날 기약이 없네
六萬年迷本性昧了天理

육만년동안 본성이 아득하고 천리에 어두우니
怎能够勸化他實實遵依

어찌 능히 그를 권하여 천리에 따라 행하리오
行道人也不免財酒色財氣

수행인도 주색재기를 면치못하니
出從違分超墜此內思疑

준종이나 위반이나 천당 지옥의 교차점에서 헤메고 있네
大半是未看破先天道理

태반은 선천도리를 간파하지 못하니
你靜坐且聽我對你所提

정좌하여 나의 지시하는 말을 들으라
雖然是不飲酒美味更喜

술은 마시지 안니하나 아름다운 맛을 다시 좋아하니
既修行要檢點惜福爲宜

수행인은 신상을 살펴보아서 복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거늘
爲什麼心只想潤身肥己

어찌하여 내몸이 윤택하고 살찔 것을 생각하느냐?
孔子云飯蔬食飲水可依

공자님 이르시기를 나물죽에 밥먹고 물마시는 것이 즐겁다 하였네
雖然是不貪色華美更喜

색은 탐하지 아니하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좋아하니

既修行要古雅素業爲宜

수행인은 검소하고 아담하고 직업에 알맞게 꾸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爲什麼心只想新鮮奇美

어찌하여 산뜻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옷만 생각하느냐?

豈不聞未足議而耻惡衣

공자님이 이르시기를 나쁜 옷을 부끄러하는 이는 도를 의논할 가치가 없
다고 하셨네

雖然是不貪財只想利己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나 내몹이 이롭기를 생각하니

既修行要節儉立功爲宜

수행인은 절약하고 검소하고 공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거늘
爲什麼心只想巧算巧取

어찌하여 약삭빠르게 서두러서 교묘하게 이익을 취할 것을 생각하느냐?

豈不思富不義浮雲幾希

옳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 같아서 보전할이 적은 것을 생각지 않네

雖然是不鬪氣還爭閒事

권력을 다투지 아니하나 부질없는 일로 다투니

既修行要忍辱謙讓爲宜

수행인은 욕을 참아서 받고 경양하는 것이 마땅 하거늘
爲什麼心只想嗔恨妬嫉

어찌하여 화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曾不記和爲貴斯爲美兮

예의 용이 평화가 귀하니 옛성왕이 이것을 아름다이 여기심을 기억에 두
지 않네

此修行只貪圖虛名掛記

이런 수행인은 허명만을 탐하다가 보니

誰知道不實行干犯天律

실행을 못해서 천법을 어기고

豈不知洪誓愿親自口許

홍서대원을 내 입으로 세운 것을 알지 못하니

難道脫巡查神與爾娛戲

순찰하는 귀신이 너를 꼬집어도 피하기 어렵네.

純陽祖加憐憫條規曉諭

순양조가 연민을 가하사 법규를 타일러

示修行衆乾坤細聽端的

수행하는 건곤 대중에게 주시니 자세히 잘 들으라

時刻刻要比返九還實體

시시각각으로 九則(구칙)에 비추어 실지로 터득하면
准許你証佛果得步雲梯

기필코 불과를 증명하여 구름다리에 오르리라
七離火要廻光返照正地

이과의 불이 본성자리에 회광반조하면
九乾金在海底火逼金離

바다속에 있는 건과의 금을 불이 가까이 가서 금이 녹아 불게하니
這就是坎中男去尋淑女

☵이과(불) ☵건과(금) ☵감과(물)
還元到離中虛復爲本體

이허증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체가 되네
要行住與坐臥謹謹遵依

행주좌와에 부지런히 준종하여 행하라
這就是坎中男去尋淑女

이것이 감과의 남자가 숙녀를 찾아가는 것이오
這就是七月七鵲橋佳期

이것이 칠월칠석 좋은 밤에 오작교를 건너가는 것이오
這就是鳶飛天魚躍海底

이것이 매는 천상에 날거늘 고기는 물속에서 뛰는 것이오
這就是君子道夫婦之機

이것이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비롯하는 천기라네
人身中到還有一層天地

사람몸 가운데 온천지가 구비되어 있으니
乾坤交坎合離百脉聚積

건곤이 사귀고 감리가 합하여 백맥이 한데 모이네
六六官都是春無窮樂趣

36궁이 도무지 봄이라 그지없이 즐거운 취미는
勝過那極樂宮洞天福基

극락궁 동천의 청복보다도 더하네
凡行道都該要遵規依矩

무릇 수도는 마땅히 불규를 준수하여야
方能够到仙班位證菩提

바야흐로 선반(仙班)에 이르러서 보리의 지위를 증명하네
能如此你師長才不憂氣

이같이 하면 너의 스승도 걱정을 앓고

亦免得老無皇日夜悲啼

무황 노모님도 밤낮으로 통곡하심을 면하시리

爲大道捨身命家業丟去

대도를 위하여 신명을 버리고 가업도 버리고

不辭勞不畏苦不懼高低

노고를 사양치 않고 흥망성쇠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實指望赴龍華了母心意

용화회상에 나가서 노모님의 기대에 맞게 하고

令人人遵規矩個個回西

사람마다 규구를 준수하여 사람마다 서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네

偈 曰

人被酒色財氣纏

사람이 주색재기로 얽매이니

墨染衣服繞身邊

먹바른 옷으로 몸을 꾸렸네

大志冲天速解散

충천대지로 어서 빨리 해탈하면

交憑准許上瑤天

요지천궁으로 올라가기를 허락시리

第五則是說的道場開闢

제오칙에 설하는 것은 불당을 열리니

地寬闊佛緣廣須多良賢

장소가 관활하고 불연이 넓고 인재가 많겠네

道雖利要防害謹遵理辨

도무가 비록 잘되나 화해를 막으려면 삼가 도리에 따라서 행하라.

倘一步有失錯罪過怎担

만일 한걸음이라도 실착이 있으면 죄과를 어찌 면하리오.

有一等不明道專講劫難

도리를 밝히지 않고 오로지 겁난을 강한자도 있고

又或言末劫年性命難全

혹은 말겁년에 성명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亦或是因緣利粗心大胆

혹은 인연이 이롭다하여 마음이 거칠고 조심성이 없으니

這就是利中害起禍根源

이것이 이로운 가운데 해로운 것이며 화를 일으키는 근원이네

或者是勸化人不講至善

혹은 사람을 권하되 지선을 강논하지 않고
 專講究某到運就在眼前
 오로지 누구의 도래하는 운이 곧 눈앞에 있을 것으로 강구하네
 至某年劫不應家業失散
 겁살이 온다는 해에 이르러 겁살이 안옥 가업을 잃어버리니
 一齊都敗了道口山不堪
 일제히 도를 헐고 구설이 산갈아서 전딜수 없네
 豈不知大千界無邊無岸
 대천세계는 가이없고 언덕이 없으니
 分地勢降災難輪流循環
 지역으로 나누어서 재난이 나리고 윤류 순환하는 이치를 어찌 모르느냐?
 或者是因道開執意弗轉
 혹은 불당이 열림으로 인하여 그집이 생겨서 전환 못하고
 每日間不謹慎帶過招愆
 날마다 근신 못하여 죄과를 초래하네
 又或是因貪多失了檢點
 혹은 탐심으로 인해서 사리를 고찰할 능력이 없고
 開示人不訪問來由根源
 점전사가 구도인의 과거 경험을 물어보지 않네
 如其人有惡陰倫常缺欠
 만일 그 사람이 남모르는 악과 패륜한 행실이 있거나
 又或是先祖上殺生結冤
 혹은 그의 조상이 살생으로 원수를 맺었더라면
 他也來求大道誠心一念
 그가 성심 일념으로 대도를 구할지라도
 開示他豈能以人遠誠虔
 입도한후 어찌 능히 오래도록 성심이 변함이 없으리오.
 中庸云無至德難凝一貫
 증응에 이르되 지극한 덕이 없으면 일관대도를 이루기 어렵다 하네
 那冤孽必使他造罪招愆
 그의 원채가 필경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네
 他一人敗了道尚屬小疑
 그 한사람이 수행이 실패됨은 작은 문제에 속하지마는
 最怕是衆乾坤受他牽連
 모든 건곤 도친이 그의 연루자 될것이 두렵네
 又或是下九流訪求至善

혹은 하천구류가 대도를 구하거든
 必須要巧遮掩另談別篇
 다른 일을 빙자하여 한때를 꺼리라
 與他交必然是敗道根淺
 그와 더불어 사귀면 필연코 도를 허는 도근이 얇은 사람이다.
 您想想他與衆怎麼並肩
 생각해보라 그가 여러 도친과 더불어 어찌 능히 어깨를 나란히 하리오.
 只因爲開的多行爲錯亂
 개황을 많이하기 위하여 행동이 전도착란을 일으키고
 又或是不遵規造罪結冤
 혹은 불규를 준행아니 하니 죄를 짓고 원수를 맺네
 不檢點怎免得無魔無難
 사람 검정을 못하면 어찌 고마와 장난이 없도록 면하며
 怎免得無風浪誹謗謠言
 어찌 풍랑이며 비방 요언이 없도록 면하리오.
 若進了冤孽種上天恨冤
 만일 죄孽의 종자를 들어오게하면 상천이 한탄하여
 必然的降考懲異種艱難
 필연코 고마와 여러 가지 어려운일을 내리우네
 又或是閒無事來往不斷
 혹은 한가하여 일없는 사람이 자주자주 내왕하면
 今隣居心生疑必起禍端
 접근하는 사람이 의심이 생겨서 화단을 일으키네
 又或是會客時紛紛議亂
 혹은 손님이 모일 때 의논이 분분하고
 又或是男共女喜笑交談
 혹은 남녀간에 기뻐 웃고 서로 담화하여
 乾坤道不避嫌醜名難担
 건곤도우가 남의 눈을 꺼리지 아니하니 취명을 당하기 어렵고
 分外人說混雜必起禍端
 외부사람이 혼잡하다고 말하니 화의단서가 되네
 這都是祖上規禁止要疑
 이것이 모두다 조상의 불규에서 의심내기를 금지한 것이니
 遵祖規不妄爲自然平安
 조규에 따라서 망동을 아니하면 자연 무사하네
 再莫說勸的多就算大善

아예 인보만 많이하면 큰 공덕이 된다고 이르지말라
 必須要考眞實方可流轉
 진실한 사람이라야 후세에 까지 유전할 것을 생각하라
 遵祖言個個能代天承辦
 조상의 말씀을 좇으면 사람마다 대천승운해야 도무를 담당할 수 있고
 依師諷人人能學聖學賢
 스승의 훈시에 의거하면 사람마다 능히 성인을 배우고 현인을 배우네
 波一個成一個方稱母願
 한 사람을 제도하면 그 한사람이 성도하여야 노모님의 뜻에 맞고
 不愧這三期會得遇一番
 이때 삼기에 처음으로 진도를 받은 보람이 있네
 凡遇緣總要以道德規勸
 무릇 연분있는 자를 만나거든 도덕으로써 권하되
 視其以觀其由察其所安
 그 동기를 보고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그 귀착하는 곳을 살펴보네
 是佛子聞善言戀戀不散
 이것이 불자라면 말을 들음에 안타까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暗地裡要訪問金木根源
 남모르는 가운데 금공 목공의 근원을 찾아오네
 持清齋立香燈跪誦經卷
 청구제계를 지키고 향화를 올리고 꿇어서 송경하고
 痛前非立品行修身要言
 전에 잘못을 당장 고치고 수신요지에 맞도록 품행을 세우네
 還要講進道后條條款款
 또다시 입도후에 준수할 사항을 조목조목 강구하여
 樣樣遵纔與他表奏上天
 일일이 준수하여야 그를 위해 비로소 상천에 표문을 올리네
 此乃是祖祖傳誰敢違犯
 이것이 조상마다 전해내려온 법이라 누가 감히 어기고 범하리오.
 遵者超違者墜決無利遷
 지키는자는 천당이오 어기는자는 지옥이 결코 변함이 없네
 更囑咐功德果小心檢點
 다시 당부하노니 공덕 공과의 다소를 조심하여 점검하라
 你還要立榜樣大衆視觀
 너는 대중이 환시하는 가운데 표방이 되어야 하네
 衆后學他見你時常勤儉

모든 후학들이 너를 보고 시시로 근검해야
 他自然亦不敢大胆狂言
 자연 대담한 망어를 내지 않네
 檢點行密密爲徐西開展
 사람을 잘보고 면밀하게 서서히 도를 펴니
 又無風又無浪又無疑嫌
 바람도 없고 물결도 없고 의심도 없네
 衆賢良才能够猛勇前辦
 모든 인재가 능히 용맹전진할 수 있고
 衆嶺袖才能够掌駕慈船
 모든 영수가 능히 물고 갈수있네
 四億眞九二靈一日怎挽
 사역의 진인이라 92억 잔영을 하루에 어찌 만회하며
 三千功八百果一時怎圓
 삼천공 팔백과를 일시에 어찌 원만하게 하리오
 又況且住極樂無疆久遠
 하물며 극락에 살기는 무한히 오래고 면세월이니
 沒有個長遠心怎列仙班
 장구한 마음이 없으면 어찌 신선반에 참여하리오
 旣遵行還要你別處勸勉
 자기가 준행하고 또 남에게도 권면하여
 令人人遵規矩久遠誠處
 사람마다 구원한 성심으로 규구를 준행하면
 庶不負純陽祖慈悲憐念
 거의 순양여조의 자비연민하신 보람이 있고
 我和你衆乾坤都有顏面
 내가 여러 건곤 도친과 면목이 서게되네
 挽九六皇胎子功圓果滿
 92억 황태자를 만회하여 공과가 원만하면
 龍華會大考場母子團圓
 용화대회의 대고시장에 모자대단원을 이루어
 皇母喜賜下了蟠桃大宴
 노모님이 기뻐 하사 하시는 반도대연에
 穿仙衣插金花何等威嚴
 신선의 옷을 입고 금연꽃을 꽂고 얼마나 위엄스러울까?
 偈 曰

傳流一貫渡良賢

일관대도가 전하여 흐르니 인재를 건지네

賢良得之回西天

인재를 얻어서 서천으로 돌아가네

天人同開無上道

천과 인이 합동하여 무상대도를 여니

道逢無德切莫傳

덕이 없는이를 만나거든 도를 전하지 말라!

第六則是說的當人引進

제6칙에 설하는 것은 사람을 인보하는데

總要有愛赤子一片慈心

적자를 사랑함과 같은 일편자심(一片慈心)이 있어야 하네

務須要依規程謹遵祖訓

불규에 의거하고 조상의 훈시를 삼가 준수하여야

一樁樁一件件耐煩告陳

사사건건을 수다스럽다 하지말고 알려주어야 한다네

第一件父母前總要孝順

첫째 부모님앞에 효순하여야 하고

訓妻子教兒女總要慇懃

처자의 훈계와 아녀의 교육을 알뜰이 하여야 한다네

或是耕或是讀要安本分

혹은 밭을 갈고 혹은 글을 읽되 본분을 편안히 여기고

更還要學謙讓和睦鄉隣

다시 경양지덕을 배워서 마을 사람과 화목하여야 하네

言修者是修飭諸惡除盡

수도라함은 이것이 모든 악을 모조리 제거하여 다하는 것이니

老毛病舊皮氣不要分文

묵은 병집과 오랜 기습은 한푼어치도 필요치 않네

把三畏與九思奉爲標準

삼외와 구사를 받들어 표준삼고

除不善改良善不負善人

불선을 제거하여 선량으로 고쳐서 선한 사람이 되네

言行者是行持端嚴人品

행이라함은 이것이 품행이 단엄하여야

說正話行正事正己正人

언론이 바르고 바른 일을 행하고 내뉘는 바르게 하고 남을 바르게 하네

令傍人挑不起奇異過分

방인으로 하여금 너무 기이하다는 감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天地喜人也愛吉慶降臨

천지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여 길한 경사가 강림하네
修天道先把那人道來進

천도를 닦으려면 먼저 인도를 닦을지니
人道足天道盈齊家修身

인도를 극진히함에 천도에 합하여 수신제가를 이룩하네
能和光能混俗免人憎恨

그지방색채에 화하고 세속에 혼동하여 남에게 미움을 안받으니
中庸云和不流謹記在心

증용에 이르기를 화하고도 흐르지 아니함을 심중에 삼가 기억하네
和則和混則混要有分才

화는 화이나 예절이 있고 혼동은 혼동이나 인시제의가 있으니
忙偷閒或誦經或讀書文

바쁜 가운데 틈을 타서 혹은 경을 외우고 혹은 글을보네
總要把丹經書熟讀幾本

몇가지 경을 숙독할지니
多誦經才能够超度冤魂

경을 많이 외우면 능히 원혼을 초도하네
六萬年傷性命口腹過分

육만년을 생명을 해치면서 구복을 치레하니
仇報仇冤報冤誰讓分文

원수는 원수로 갚고 원혼은 원혼으로 갚으니 한푼인들 누구가 양보하리오
早把他超度出免設魔陣

어서어서 원혼을 초도하면 마군이 진을 벌리지 아니하여
西方路無阻隔好見娘親

서천으로 가는 길이 막힘이 없고 좋은 기분으로 어머니를 뵈오리
天地位萬物育各守本分

천지가 자리잡고 만물이 자라나서 각기 본분을 지키고 있으니
殺他命肥己身 怒天心

남의 생명을 죽이고 내물을 살찌게 하면 천심이 노하네
到如今修一貫何不體論

이제 일관도를 닦으니 어찌 미루어 살피지 않느냐?
體天地好生德禍患不侵

천지호생지덕을 본뜬다면 화환(禍患)이 침입하지 않네

當此時三期運原人返本

이때 삼기운을 당하여 원인이 근본으로 돌아가니

怎奈他造的罪山高海深

그 지은 죄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음을 어찌하리오

一提起要收圓諸魔不准

한번 일으킴에 수원하려 하나 모든 마가 듣지 않으니

故三千立佛規實在嚴森

그러므로 삼천가지 불규를 세워 진실로 삼엄하네

未進道三層功真真要緊

입도하기전에 세가지 공이 참으로 요긴하고

既進道亦如是要體天心

입도한 후에도 이같이 선심을 본떠야하네

多立功多立德挽回劫運

공을 많이 세우고 덕을 많이 세워서 겁운을 만회하면

這大道才能够指日新民

대도가 능히 밝게 나타나 민심이 날로 세로워지네

釋氏者大藏經五千餘本

불교의 대장경이 오천여 권이오

老子有道德經五千餘文

노자의 도덕경이 오천여 글이네

孔子云八歲時小學可進

공자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팔세에 소학에 들고

十五歲就能入大學修身

십오세에 능히 대학에 들어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배운다 하니

自初生至十五五千餘輝

처음 날아서부터 십오세까지 날도 오천여 날이라

故十五六陽足正好修身

십오세에 육양(六陽)이 차서 건과가 되니 수신하기에 좋구나

一藏經五千四就比言論

대장경이 오천사백권이 됨은 이 사실에 기인된 것이니

並非是信口言妄捏虛文

함부로 말하고 허무한 글을 날조한 것이 아니네

十五歲乾陽滿十六要損

십오세에 건과의 양이 차서 십육세에 덜리니

滿之極就溢衍順行生人

그릇이 가득차면 넘는 것은 사람도 일반이네

觀太陰十五圓十六要損

달을 보건데 십오일 밤에 차고 십육일에 덜리니

丹經云小天地就是人身

단경에 이르되 사람몸은 작은 천지라고 하였네

人身中有眞靈無虧無損

사람몸 가운데 기우러짐도 덜림도 없는 진령이 있으니

賢不增愚不減就是元神

이것이 원신이라 성현이라구 더하지 않고 범부라고 덜하지 않네

落后天元神退識神當任

후천에 떨어진 후 원신이 물러가고 식신이 주장하니

這就是六陽足午過成陰

그러므로 육양(六陽)이 차면 오시가 지나고 음이 생기네

本來性只一個那有二品

본래의 천성은 다만 하나이라 어찌 둘이 있으리오

落后天智識開取名識神

후천에 떨어져서 지식이 열리자 식신이라 이름하니

就知道貪無厭忘恩失本

탐하여 싫어함이 없고 은혜를 잊고 근본을 잃고

造下罪入地府所以屬陰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가네 그러므로 식신은 음에 속하네

要進道先不忘大理當論

입도하려면 첫째 대도의 이치를 논할지니

這大道不等那小道旁門

대도는 좌도방문과 달라서 실천없이 입도하기 어렵네

先天道少不得立誓方準

선천도는 반드시 흥서대원을 세워야 하니

或欺師或滅祖五雷分身

혹 스승을 속이거나 혹 조상을 업신여기면 오뢰로 몸을 분신시키네

惟願請靈祖爺作證詳審

오직 영험하신 조상 부모님이 확실한 증인이 되심을 원할뿐

不謹慎豈不是自害自身

근신을 못하면 이것이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 아니냐?

不遵規不依矩諸佛不蔭

법규를 쫓지않고 의거하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이 감싸주지 않네

六萬年那冤孽誰不上門

육만년의 저 원혼이 누구라서 침입하지 않으리오

阻阻隔總要你忘恩失本

길을 막고 또 막아서 너로 하여금 은혜를 잊고 근본을 잃고

墮阿鼻無出期他才稱善

아비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게되면 그때 손벽치며 쾌재를 부르네

既進道立誓願隨緣隨份

입도한 후 연분에 따라서 서원을 세우되

只要你惡不作衆善永存

다만 네가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길이 존재시키면

依功德大與小受福承任

공덕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명을 받나니

一世苦一世榮共不負人

한세상 괴롭고 즐거움이 모두 자기의 지은대로 되네

既遵行還要你別處宣訓

내가 준행하고 또다시 남에 권하여야

方不負純陽祖一片婆心

바야흐로 순양조의 일편파심(一片婆心)을 저버리지 않네

九六齊龍華到三曹同飲

96억이 일제히 용화대회에 이르러 삼조가 한가지로 마실때

依功德定品級天爵光榮

공덕에 따라서 품급을 정하니 하늘에 벼슬이 영광스럽네

不枉你得大道小心謹慎

네가 대도를 얻어서 조심하여 근신한 보람이 있고

不枉你爲大道受盡苦辛

네가 대도를 위하여 신고(辛苦)를 마냥 겪은 보람이 있네

偈 曰

慈心發動憫殘靈

자비스러운 마음이 발동하여 잔령을 어여삐 여기니

航撐東海救群生

동해에 배뛰우고 군생(群生)을 건지네

普勉艚公急催趕

널리 권하노니 사공은 어서 뱃길을 재촉하여

渡回西天瑤池宮

서천 요지궁으로 돌아가세

第七則是說的同師共祖

제7칙에 설한 것은 스승과 함께 조상과 같이

行大道離凡情修煉虛無

대도를 행하고 범정(凡情)을 떠나서 허무적멸을 수련하네
 就該要掃恨嗔除却嫉妬
 원한과 진노를 쓸어 없애고 질투를 버려야
 這才算頂天地賢良丈夫
 천지에 부끄럽지 않는 현량한 장부가 되네
 這嫉字是計較他人賢淑
 투기할질(嫉)자는 남이 현숙함을 꺼리는 것이오
 妒字是蠹害他人技熟 蠹=좀두
 투기할투(妒)자는 남이 재주가 원숙함을 해지는 것이라네
 這恨字是怨恨待人不恕
 한탄할한(恨)자는 이것이 원한이니 남의 잘못을 용서 않는 것이오
 這嗔字是嗔怒待己不扶
 노할진(嗔)자는 이것이 진노이니 내몸을 바로잡지 못한것이라네
 或者是因辨道同在一處
 혹은 도무로 인하여 한곳에 같이 있으면서
 想自己本無才心口不服
 자기의 본래 무능한 것을 생각해야 마음으로도 복종않고 말로도 훼방하네
 又是那奉上人慇懃服助
 혹은 위를 받드는 사람이 알뜰히 복종하는 것을 보고
 想自己本怠慢必起機謀
 자기의 본래 태만한 것을 생각하고 반동심을 일으키네
 或者是自己過不認錯處
 혹은 자기 잘못을 인정않고
 還憎嫌是他人不會逮糊
 도리어 남을 어리석다고 미워하네
 或者是他人過只怕掩住
 혹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衆人滅他自興才是心腹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자기만 흥왕하라는 것이 그의 뱃속이네
 這都是假修行意圖名目
 이것이 도무지 가짜로 수행하는 의도와 명목이니
 又好高又好勝又愛舒腹
 높이기를 좋아하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또 쾌락을 좋아하네
 仗自勢依自是巧遂巧獲
 자기세력을 부식하고 스스로 옳다함으로 교묘하게 이루고 교묘하게 얻으
 니

那知道暗空中暗有神觀

어둠의 속에 신이 보고 있는줄을 어찌 알리오

既有才就該要遵師調度

재주가 있는자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或開荒或辦道有規有模

개황에 도무에 규모가 있고

要辦到大收圓才滿腸吐

대수원에 이르러서 만장의 재주를 토할지니

赴龍華何愁你人人共扶

용화대회에 가면 염려할 것 없이 사람마다 너를 추앙하네

自覺着才智大都不勝吾

나의 지개가 큼을 자각하면 나를 이기지 못하나니

誰知道人不歸卽神不扶

인심이 귀의하지 않으면 신이 도와주지 않는 줄을 누가 알리오

這種病不早改空自吃苦

이런 병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겪을뿐 아니라

最怕的招陰魔更加糊塗

음마를 초래하여 지혜가 으레 어두어질 것이 두렵네

修行人最宜着寬腸大吐

수행인은 흥금을 활짝 풀어놓아

要同心與同德互相扶助

동심동덕으로 상호부조하여야 하네

切不可持強撈把人欺侮

절대로 강하게 휘어잡아 남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又不可受奉承職分貪圖

남을 받들어 복종함을 받아 좋은 자리를 탐하거나 도모하지 말아야하네

汎愛衆而親仁聖人所著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이를 친함은 성인이 말씀하시바이니

成人美助人功神喜人服

남의 좋은 일을 이루고 남의 공을 도우면 신이 기뻐하고 사람이 복종하네

修道人還要有這樣好處

수도인은 이런 미덕이 있을지니

何況這修天道凡情不如

하물며 천도를 닦음은 범정과 다르네

就如此去辦道同在一路

이같이 도무를 보는 가운데

偶遇見同事人好言相扶

동사(同事)인을 만나거든 좋은 말로 서로 협력하여
總教他遵規矩遵師之囑

그로 하여금 법규를 좇고 스승의 분부를 좇아서
又顯見大道重又顯同腹

대도가 중함을 나타내고 형제가 그리움을 타나내네
昔日有聞過喜由也子路

옛적에 자기잘못을 듣고 기뻐한이가 있으니 공자님의 제자 자로요
夏禹王拜善言永存聖書

하나라 우왕은 선한 말에 절하니 길이 성인의 글에 남아있네
古聖賢尚且是這樣忍辱

옛 성현도 이같이 욕을 참으니
何況是后學輩孽重之徒

항차 후학의 배(輩)는 죄가 무거운 무리이네
古人言道難得難脫地府

옛사람이 이르되 도는 얻기 어렵고 지부는 면하기 어렵다하니
細思想這輪迴怎樣得出

자세히 생각해보라 윤회를 어찌 탈출하리오
幸遇着上天爺大開普渡

다행이 이때를 만나 상천이 보도를 크게 여니
想上天海深恩如何報復

상천의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생각건대 어이 보답할꼬?
又況且三期任珍重難訴

항차 삼기의 책임은 중대하여 말하기 어려우니
接九二原來子同歸故廬

92원자를 거두어서 고향으로 같이 가네
無真功與實德怎能保住

진공과 실덕이 없으면 고향을 어이가며
承空任見老母怎担罪徒

수원을 못하고 노모님께 나아가면 죄지은 무리들을 어이 하잔말인가?
都不勝爲衆生隨緣輔助

증생을 위하여 연분에 따라 도와주는 것이 좋으니
一分功一分果天不辜負

한푼의 공 한푼의 과라도 하늘은 저버리지 않네
你若是加猛勇功歸實處

네가 만일 응맹을 더하여 진공을 쌓으면

赴龍華濟衆生奪得頂祿

응화대회에 도달하고 중생을 건져서 제일 가는 녹을 누리네
自誇詐人虛輔貪心透露

스스로 속이고 남을 거짓으로 도우면 탐심이 드러나네
人視己如見肺爲能隱伏

남이 나를 보는 것이 뱃속을 보는듯하여 어찌 능히 숨기리오
況上人取嶺袖以功爲主

항차 윗 사람이 영도자를 취함에 공으로써 주장을 삼으니
同是他后學輩有何親疎

다같이 그의 후학이라 무슨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있으리오
咱都是靈山上共同一母

우리들은 영산위에 공동으로 한 어머니 소생이라
又何必分人我爭強論輸

하필 남과 나를 구분하고 강약을 다투랴?
今有緣得正位毛病宜除

이제 연분이 있어서 본성 자리를 얻으니 병근을 제거하면
身輕繞能够認認祖歸廬

몸을 에워싼 것이 덜어지고 조상을 알고 옛집으로 돌아갈 수 있네
自靈山分了性流浪東土

영산에 본성과 이별하여 동토에 방랑한 후로
生而死死而生反反復復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 반복하고 반복한네
好容易才遇着三期普渡

다행으로 삼기보도를 만났으니
我豈肯自暴棄自尋嗚呼

우리가 왜 자포자기로 비참한 길을 택할 것인가?
論清福本無窮一言難吐

칭복으로 말하면은 무궁무진하니 한마디로 다하기 어렵다마는
辭了母六萬年指日才覩

노모님을 이별한지 육만년에 목전에 뵈었네
一家人團圓會極樂永住

한집식구가 빠짐없이 모여서 극락에 영주하니
方免得老皇母日夜慟哭

노모님이 밤낮으로 통곡하심을 면할 것이라네
既遵行還要你宣講別處

내가 증행하고 또다시 남에게 선강하여

令人人遵規矩個個依橫

사람마다 법규를 준수하고 가른나무에 의거하니

庶不負純陽祖這般辛苦

순양여조의 이렇듯 신고(후곡)하신 보람이 있고

你與我衆乾坤都有美祿

우리 건곤 도친이 모두 아름다운 녹이 있네

龍華會考功果上等上戶

용화대회에 공과를 살피니 상등상호(上等上戶)는

上天爺賜勢事左右侍扶

상천이 시종을 주시어 좌우로 모시네

一個個聽調遣陞降由吾

좌우가 명령을 듣고 나를 따라 오르내리네

眞快活萬八載豈不樂乎

참으로 유쾌하다 만팔백년이 어찌 즐겁지 않으리오

偈 曰

皮氣毛病實難脫

혈기와 마음병이 해탈하기 어려우니

兌卦謙讓要記着

주역에 태괘의 겸양을 잊지말라

目下就是三期到

눈 아래에 삼기가 당도하니

力行不怠出娑婆

힘써 행하고 게을리 아니하여 사바세계를 떠나자

第八則是說的敗道衆友

제팔칙에 설하는 것은 도를 패하는 여러 친구들을

提起來不由我痛加悲愁

생각하니 잡자기 수심이 더하지 않을 수 없네

此時節龍華近速速回首

이때는 용화회가 가까워 오니 어서어서 머리를 돌이키라

如不然臨場時哭斷咽喉

그렇지 않으면 그때를 당하여 목이 터지도록 통곡하게 되네

論起來敗道的這些孽垢

이렇게 보면 도를 패(敗)하는 이 한죄는

一言而表不出大概尋搜

한 마디로 그려내지는 못하나 대강을 더듬어 본다면

或逞才或驕傲或貪領袖

혹은 재주에 놓고 혹은 주제넘고 혹은 영도자의 지위를 탐하고
 或畏考或破戒或把魔投
 혹은 고마가 무섭고 혹은 계행을 깨뜨리고 혹은 마도에 몸을 던지네
 這都是詭詐人大理不透
 이것은 가짜로 믿는 사람이 대도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全不思得眞道還要眞修
 진짜로 닦는 것이 진도임을 전혀 생각지 않네
 全不思古之人大道怎受
 옛 사람이 대도를 받은 고수고련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全不思今三期普渡根由
 이제 삼기에 보도하는 이유를 전혀 생각지 않네
 這大道自古來稀聞罕有
 이대도는 옛부터 듣기도 드물고 있기도 드무니
 得之成聞之昇永伴善儔
 얻으면 이루고 들으면 올라서 길이 신선의 무리와 벗하네
 一子成九祖昇決言無繆 繆=잘못무
 한자식이 도를 이루면 구조가 신선에 오르다는 말이 결코 틀림이 없네
 無眞功與實德與步青樓
 진공과 실덕이 없으면 어찌 신선의 누각에 걸어 오르리오
 六萬年冤孽貼門前等候
 육만년의 원일이 떠나지 않고 문앞에서 기다리니
 或性命或錢財或是忿仇
 혹은 목숨 혹은 전재 혹은 무삼원한을 품은 원수라네
 不立功不培德不求赦宥
 공을 세우지 않고 덕을 복돋우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那冤孽他豈肯讓你乘舟
 그 원일이 어찌 즐거이 네가 배에 오르는 대로 버려두리오
 洪誓願在神前親口許就
 홍서대원을 신전(神前)에서 자기 입으로 청하여 세우니
 老上天豈容他霸道橫修
 상천이 어찌 그의 패도와 삐뚜러진 수도를 용서하리오
 官憑印私憑文修道誓守
 관청은 도장에 의거하고 민간은 문서에 의거하고 수도인은 서원을 지키니
 有差錯照誓報雷誅獄守
 잘못이 있으면 서원대로 갚아서 오뢰로 베고 지옥에 가두네
 標了名抽了丁天地赦宥

이름을 표하고 장부에 올려서 천지가 용서하면
 九玄祖天地門候你西游
 구현 칠조가 천지의 문앞에서 너의 서천으로 오르기를 기다리네
 破了戒敗了道重加罪咎
 계를 깨고 도를 패(敗)하면 거듭 죄를 가하여
 九玄祖復陰祠晝夜淚流
 구현 칠조가 지옥에 떨어져서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네
 有一個成道的一方領袖
 어떤 사람은 성도하여 한 지방에 영수가 되고
 有一個敗道的一方寇讎
 어떤 사람은 패도(敗道)하여 한 지방에 원수가 되네
 做壞了佛標榜罪爲魁首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면 그 죄가 크니
 無智人照這樣普渡怎收
 무지인(無智人)을 이대로 하면 보도의 공을 어찌 거두리오
 此時節老上蒼施恩實厚
 이때는 상천이 실로 후은을 베풀으시니
 破了戒再復戒加工增修
 계를 깨면 다시 원을 올려서 공부와 수행을 더욱 증가하네
 多立功名培德消解罪咎
 공을 많이 세우고 덕을 많이 북돋아서 죄를 해소하면
 好把你敗道罪一概清勾
 너의 패도(敗道)한 죄를 깨끗이 지우네
 只要把改前非大理認透
 다만 지난날의 잘못을 고침으로써 대도의 이치를 깨쳐서
 割恩愛斷牽纏慙懃加修
 은애를 버리고 사슬을 끊어서 알뜰히 수행을 가하면
 也可以赴龍華與祖上壽
 가히써 용화대회에 나아가서 조상께 추수를 올리고
 也可以回極樂解母憂愁
 가히써 극락에 돌아가서 노모님의 우수(憂愁)를 푸네
 領恩者再破戒誓願更厚
 한번 용서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계를 깨면 원을 더 크게 세울지라도
 駕舟行江心中打破船頭
 배를 몰고 깊은 바다에 가서 뱃머리를 부수니
 那破船攏了岸古來少有

부서진 배가 피안에 닿기는 옛부터 드문 일이네
 若再去開示人玷辱群流
 그래도 그를 제도하려고 들면 하천구류가 되고 마네
 說此話真不知天高地厚
 이것은 참으로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운줄을 모르는 이야기다.
 難道說虛空中無有神糾
 어찌 허공중에 신이 살피봄이 없다하리오
 心卽神神卽心覺世經有
 마음이 곧 신이요 신이 곧 마음이라 함은 각세진경에 있는 말씀이다.
 是怕的照誓報眼落雷收
 원대로 갇아서 눈앞에 오뢰가 떨어져 죽을것이 두렵네
 無故的破了戒慚愧醜陋
 무고히 계율을 깨트린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千後悔萬後悔悔之不周
 천만번 후회해도 후회를 다못하네
 無奈何求先生母文上奏
 참다 못하여 선생님께 빌어서 노모님께 원의 표문을 올리고
 再如此願墮在阿鼻獄囚
 다시 이런일이 있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져 갇힐 것을 원하네
 諸佛祖看他的悔過心就
 모든 불조가 그의 회과심이 간절한 것을 보고
 才把他破戒罪一筆勾消
 그의 파계한 죄를 일필로 지우네
 你才要多培植好好保守
 너는 많은 공덕을 복돋어 고이고이 보수할지니
 如不改卽墮在地獄函囚
 만일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면 곧 지옥에 떨어져 갇히네
 上天爺他豈肯與人同鬪
 상천이 어찌 즐거이 사람과 더불어 다투며
 他豈能無憐憫這樣短糾
 어찌 동정심이 없이 이렇듯 급히 재촉하리오마는
 善有盈惡有滿那論速久
 선도 가득 참이있고 악도 가득함이 있으니 어찌 속하고 더딤을 논 하리오
 難道說你不知五雷根由
 네가 오뢰의 떨어지는 이유를 모를리는 없네
 這五雷落紅塵五行造就

이 오뢰가 혼진세계에 떨어지기는 오행으로 이루어지니
 或水淹或火焚或金破頭
 혹은 물에 빠지고 혹은 불에 타고 혹은 총으로 머리를 쏘고
 又或是遭避壓凶木哀首
 혹은 형벌을 받아 곤봉이 머리위에 오르고
 又或是生性病纏綿不休
 혹은 병이 몸에 얽혀져 고치지 못하네
 天律嚴你就該趁早回首
 천법이 엄하니 빨리 회수하라
 莫到那臨腸時哭破咽喉
 그때를 당하여 목이 터지도록 울어도 허사라네
 已犯者急速改未犯謹守
 이 범자는 급속히 고치고 미범자는 삼가히 지켜서
 遵祖規不妄爲快然悠悠
 조상의 법규에 따라서 망동을 아니하면 쾌락이 유유하네
 既遵行還要你別處講究
 내가 준행하고 또다시 남에게 권하여
 令人人遵規矩個個加修
 사람마다 법규를 따르고 사람마다 수행을 가하면
 庶不負純陽祖循循善誘
 순양여조의 순순선유한 보람이 있고
 你與我衆乾坤都有來由
 너와 나 여러 건곤도친이 모두다 존재가 있네
 宣講的修道人全無敗露
 수도인이 법규를 어김이 없도록 선전하고
 原來子歸極樂普渡圓收
 원자를 보도수원하여 극락으로 돌아가면
 老蒼皇念起你宣講告口
 상천이 너의 구고선전한 공을 생각하여
 必然的獎賞你上品仙儔
 필연코 너를 상품 선인으로 표창하네
 朝金闕謁無皇大開赦宥
 금궐에 죄회하여 무황께 뵈니 크게 잔치를 열어서
 賞仙衣賜綬帶任意玩游
 선의를 상으로 주고 수대를 주어서 임으로 노네
 超九玄拔七祖無疆福壽

구현칠조를 초발하여 수복이 무강하니
 也不枉來東土走信一週
 동토에 와서 쏘다닌 보람이 있네
 偈 曰
 洪愿元來是文憑
 큰 원은 본래부터 증명이 되네
 憑証失落怎回程
 증명을 잃어버리면 고향을 어이 가리오
 程阻多因妖麼怪
 고향길이 막힘은 마의 요괴 까닭이니
 怪怕行人道德洪
 요괴는 세상에 도덕이 널리 평을 두려워하네
 第九則是說的一貫大道
 제구칙에 설하는 것은 일관도의
 要咱們辦道人和合同僚
 점전사 단주들이 동료간에 화합하여
 切不可爲功果彼此爭討
 공과로 인하여 피차 다투지 말고
 要知道是靈山一母同胞
 다같이 연산 한 어머니에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要您等立志向穩抱大道
 그대들이 지향을 세우고 대도를 포근히 안아서
 體學的古聖賢才能高超
 옛 성현을 배워야 능히 높은데 오르네
 人難捨我能捨身命不要
 남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내가 능히 버려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人難行我能行行得頂高
 남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능히 행하여 최고로 행하네
 就如那初學道不畏魔考
 그같이 하면 초학자도 고마가 무섭지 않고
 千麼考萬麼煉守定一爻
 천마만마의 시련에도 일효(一爻)를 지켜 안정하네
 任人毀任人謗任人恥笑
 남이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치소를 보이거나
 放下了鐵面皮立志堅牢
 무쇠탈을 쓰고 입지를 견고히하네

卽得了這大道中庸之外

곧 증용의 대도를 얻을 뿐 아니라

就該要積陰德培養靈苗

음덕을 쌓아서 영(靈)의 약초의 싹을 복돋우어야 하네

或捨財或捨身替天闡道

혹은 재물을 버리고 혹은 몸을 버려서 상천대신 도를 밝히네

要知道母爲兒日夜嚎啣

노모님이 아녀들을 찾아 밤낮으로 부르짖어 우심을 생각해야 하네

道開洪人寬廣調度至要

도를 널리 펴는데는 사람이 너그럽고 도량이 커야하니

視道場如家務莫言受勞

도무 보기를 집일 같이하여 수고를 말하지 말라

敬道友如同胞總要和好

도친 공경하기를 동포 같이 하되 서로 화락하여 사랑하고

待後學如兄弟耐煩教調

후학 취급하기를 형제 같이 하되 번거로움을 참고 깨져주라

爲的事三期到諸佛淚弔

왜냐면은 삼기가 다다름에 제불이 눈물을 흘리며

爲原人捨蓮位投下東郊

원인을 위하여 연대를 버리고 동토로 떨어져서

一個個不辭苦挨門尋找

각기 수고를 사양치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原九二早濟備同把母朝

92원자를 빨리 제도하여 노모님께 뵈을 준비를 하건마는

誰知道衆迷子不易勸遵

어찌하여 모든 미매한 분자들이 권하는 말을 쉽게 듣지아니하여

貪紅塵墜苦海實難指教

홍진을 탐하고 고해에 떨어지니 실로 깨치기 어렵네

一來是時不至緣分不到

첫째는 때가 이르지 않으니 연분이 이르지 않네

二還是上天爺未開赦條

둘째는 상천이 허락을 않으시네

那冤魂能阻塞賢良路道

저 원혼이 능히 현량의 가는길을 막으니

總遇的是蛇蝎未免徒勞

蝎=전갈갈

만나는 것은 도무지 뱀과 전갈이라 헛수고를 편치 못하네

細思想還是我罪孽深造

자세히 생각건대 나의 지은 죄가 짙으니

生甚法纔可以感格天曹

어쩌면 가히써 천심을 감격할꼬

無奈何跪神前直言上表

신전(神前)에 꿇어서 직언으로 표문을 올릴 수밖에 도리가 없네

爲普渡縱屈死決無怨條

보도를 위해서는 비록 어물하게 죽을지라도 결코 원한이 없다고

常思想佛家錢功德多少

불당의 돈은 다소를 물론하고 그 공덕이

消解那累劫的冤孽凶豪

누굽의 흉호한 원일을 푸는 것이니

你若是不檢點妄爲胡鬧

네가 만일 점점을 안고 망동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那冤孽他豈能讓你逍遙

저 원일이 어찌 너의 극락가는 것을 가만 두리오

有了儉再有勤方是全好

검약하고 또 근면하면 완전 좋으니

能如此方可以建大功勞

능히 이같이 하면 가히써 큰 공로를 세우네

乃有等領辦者不明聖道

어떤 영도자는 성인의 도를 밝히지 못하여

違背了祖家規自把罪礁

조상의 규칙을 어기고 스스로 죄를 초래하네

把師尊與道友一概忘了

사존과 도친들을 모조리 잊어버리니

怎不體靈山上一母同胞

어찌 영산상에 한 어머니의 동포임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任性情逞英雄橫行霸道

성질에 맡기고 영웅기분을 풀어놓아서 패도를 횡하니

真正是佛門中孽種根苗

참으로 불문중 죄의 근원이네

現放着天堂路甘心不要

눈앞에 놓인 천당길을 모가도 좋다하고

那地獄本無門專意自招

저 지옥이 본래 문이 없거늘 전심전력으로 초래하네

欺師友滅祖根上天怒惱

사우(師友)을 속이고 조상의 근원을 망침에 상천이 노하니
曾不記進道時洪願昭昭

입도시에 홍원을 세운 것이 소소함을 기억치 않느냐?
靈祖察聖母鑑那有虛渺

여조가 살피고 성모가 보니 어찌 거짓이 있으리오
最怕拓九玄祖痛哭陰曹

구현칠조가 지옥에서 통곡할 것이 가장 두렵네
歷代祖著規則明明訴告

역대조사가 법칙을 지어서 밝게 고하고
汝師尊費血心苦口教調

너의 사존이 심혈을 다하여 입이 쓰도록 지시하니
不遵行豈不是違悖訓教

준행을 아니하면 사훈을 어기는 것이 아니며
違師訓豈不是滅祖規條

사훈을 어기면 어찌 조상의 법칙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
依我說要想學大忠大孝

나의 권고에 따라서 대충대효를 배우고
要立起沖天志莫畏苦勞

충천지를 세워서 노고를 두려워 하지말라
多立功多立德憑緣尋找

공을 많이 세우고 덕을 많이 북돋우어 연분을 차아다니니
人有誠天有應自有吉爻

사람이 성심이 있으면 하늘이 감응이 있어서 자연 길한 과효가 있네
只要你誠心勸諸麼掃盡

네가 성심으로 권하여 모든 마를 다쓸고
積千功累萬德開口之勞

수고롭게 입을 열어 천공만덕을 쌓으라
那怕他累劫的罪山孽島

누겁의 죄가 산갈고 악이 섬갈을 지라도 두렵지 않고
不須愁不妄爲福海德高

거짓으로 아니하면 복이 바다갈고 덕 높으기를 바라는 애쓸 것 없네
積功德不怕他愈多愈妙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더욱 묘하니
六萬年那罪孽深淺誰曉

육만년에 지은 죄열이 심도를 몰라서 두려워 할 것 없네

以功數抵罪數餘下是好

공의 수량으로써 죄의 수량에 비추어 남음이 있으면 좋으니
依多少分九品蓮台高低

많고 적음에 따라서 높고 낮은 구름연대로 나누네
既遵行還要那別處說教

내가 준행하고 또다시 남애가 설교하여
令人人積功德個個高超

사람마다 공덕을 쌓고 사람마다 천당에 오르면
庶不負純陽祖費心不少

순양여조의 적지않은 심혈을 기울인 보람이 있고
你與我衆乾坤都有功勞

너와 나 여러 건곤도친이 각각 공노가 있네
挽九二原來子彼岸同到

92원자를 만회하여 피안에 같이 이르니
三期圓普渡滿共赴蟠桃

삼기보도가 원만하여 반도찬치에 같이 가네
會三曹諸佛眞都來掛號

삼조의 모든 부처 진인이 와서 이름을 거니
依功果享爵位萬古名標

공과에 따라 작위(爵位)를 받음에 만고에 높으네
皇母喜賞仙衣綬帶榮耀

황모가 기뻐야야 영예로운 선의수대를 상주고
諸佛樂賜執事侍奉代勞

제불이 기뻐하여 집사(執事)를 주어서 모시고 노고를 대신하네
受天祿不計春無疆玄妙

세월을 계산않고 현묘 무강한 천록을 받으니
隨老母享安樂無限逍遙

노모님을 따라서 아락을 누리고 무한히 소요하네
偈 曰

先聖遺留渡世舟

옛 성인이 세상건지는 배를 물려주고가니
天人同駕苦海游

하늘과 사람이 같이 타서 고향을 건너네
大家努力加猛勇

대중은 노력하여 용기를 가하라
道成極樂伴仙儔

도가 이루면 극락에서 신선을 벗하네
 道冠九則古今範圍
 도관구칙은 옛과 지금을 통하여
 聲宏名遠勤若迅雷
 명성이 널리 퍼지고 동작이 신뢰같이 빠르네
 喚迷途仰瞻一貫
 길잃어 헤매는자를 환기하여 일관도를 우러러보고
 警濁寰羨慕道德
 탁한 세상을 깨워서 도덕을 닦고싶어 하네
 洩千經之聳翠
 일천경의 우뚝한 말씀이 새로 나오고
 闡萬典之宏恢
 일만전의 넓고 너른 터전을 열려 밝히네
 集群教之秘美
 모든 교의 신비한미를 모으고
 倡宗師之攸歸
 점전사의 귀의할 바를 일깨우네
 踐形盡性升堂入室通仙境
 형상에 따라 성을 다하니 당에 오르고 실에 들에 선경으로 통하고
 應現神知洞徹天人順帝則
 신의 지혜가 응하여 나타나니 천과 인을 통달하고 상제의 법칙대로 하네
 鑄金鉢爲辭平
 금사발을 부어 만든 것 같이 말이 험하니
 定生寶蓮潔自清
 일정코 보배의 연꽃이 나서 깨끗하고
 懸玉壺爲義崇
 밝은 달이 중천에 걸린 듯 뜻이 숭고하니
 別有乾坤現光明
 속세아닌 별천지에 광명이 나타났네
 寂照兮碧落氷肌雪容
 푸른 하늘에 월색이 명량하니 어름살결에 눈 모양이오
 元氣兮沖虛素淡盈輕
 원기는 허하고 비니 희고 맑고 한들거리네
 駕飛龍逍遙乎四海之外
 날으는 용을 타서 사해밖에 놀고
 登瓊霄共樂夫大同之雁

경소에 올라서 대동의 궁전에 즐거이 노네
 誰窺其藩誰見其境存神達妙
 그 올라리와 경내를 누가 엿보리오 마음을 존하고 묘를 알면
 當前聖宗一靈妙有真機十方
 성인의 법이 목전에 있네 한 영의 묘유는 진실한 기축이니 십방의
 法界圓滿大用顯彰空玄性化
 법계가 원만하여 대조화가 공공한 현관에서 나타나고 성의 조화는 제천을
 통솔하네
 通御諸天闢元始之未然
 원시의 미연에서 열고
 闔貞終之弗完兩頭包羅陰陽
 정종의 불완전에 단아서 양두로 음양을 두루싸니
 造化資育萬端雖是森羅雜撰
 조화는 만단으로 돕고 이루네 삼라의 잡찬이나
 不遷理之主宰
 이치의 주재로
 直造無極自然
 곧 무극자연에 이르네
 甲辰七月晦日 濟州市 理世法壇

=終=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